

한국부식학회 창립 20주년에

회장 김면섭

지금부터 20년 전인 1971년 3월 6일에 부식 및 방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뜻을 모아 부식 및 방식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부식학회를 창립하였습니다. 그후 오늘날 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년이 지나는 사이에 우리 학회가 많이 발전하였으므로 감개가 무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우리 학회가 창립될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업은 요람기였으며 특히 부식 및 방식 기술과 학문은 거의 미개척 상태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부식 및 방식에 관한 고도의 기술과 학문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우리학회의 역할도 지대하여 졌습니다. 그리하여 부식 및 방식 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강연회는 물론 매년 부식 및 방식 강습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고 그 성과는 대단히 컸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이 강습회나 세미나에 참가한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. 학회지 발간도 꾸준히 행하여 많은 논문과 기술해설 등을 실어 배포하였으며 우수한 연구원에게 연구 장려금을 지급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그 논문도 발표하였고 외국의 유능한 학자나 기술자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도 가지면서,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간 회원은 물론 임원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지금까지 부식학회를 빛나게 하었다고 생각합니다.

그러나 우리 학회가 걸어 온 길이 이렇게 평탄하지 만은 않았습니다. 한 때는 재정적으로 대단히 어려웠던 때도 있었으나 학회를 아끼는 여러 회원들과 임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어려웠던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학회활동이 끊기지 않고 계속 잘 되어 나갔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 급할 길이 없습니다.

우리나라 산업도 지금은 많이 발달되어 생산과 소비가 많아졌고 수출과 수입도 많아졌습니다. 그러나 요즘은 기술이 산업발전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 시점에서 부식 및 방식 기술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와 같은 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은 우리학회의 사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부식 및 방식 강습회를 더 활성화하여 산업현장에서의 기술자들의 기술과 학문의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 교류에 의한 선진 기술의 습득과 교류에 힘 쓰기 위하여 국제 세미나에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협조하며 외국의 유능한 학자나 기술자들을 많이 초청하여 세미나등을 개최하여 유익한 기술들을 많이 축적하는 한편 연구활동을 현장과 학계 또는 연구계를 잘 연결짓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앞으로 주어진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.

지금은 '90년대를 맞이 하였습니다. 10년 후면 2000년대로 됩니다. 그때 쫓이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다가 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. 이와 같은 확신이 잘 이룩되도록 우리 부식학회 회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학회 발전은 물론 부식 및 방식의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온 정성을 다 하여 나아가야 겠습니다.